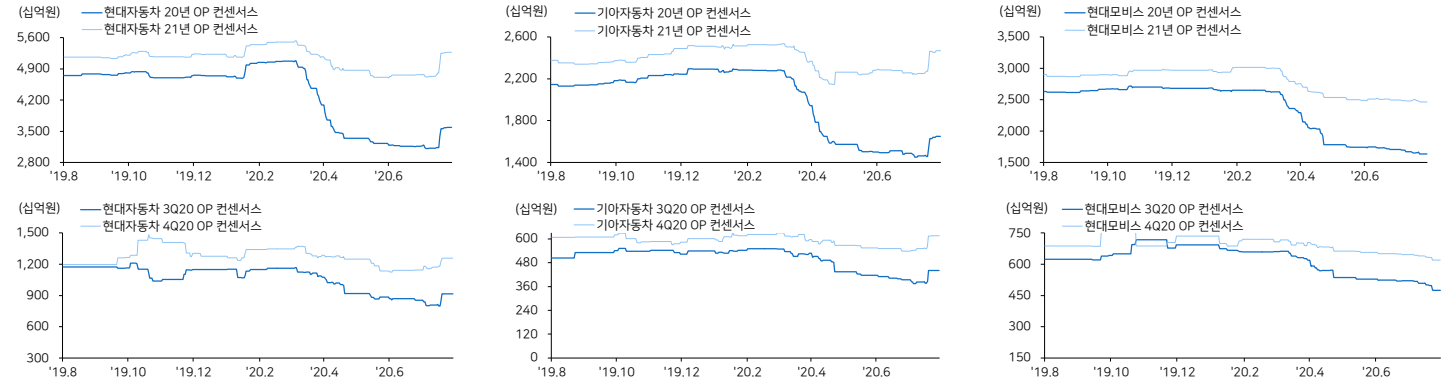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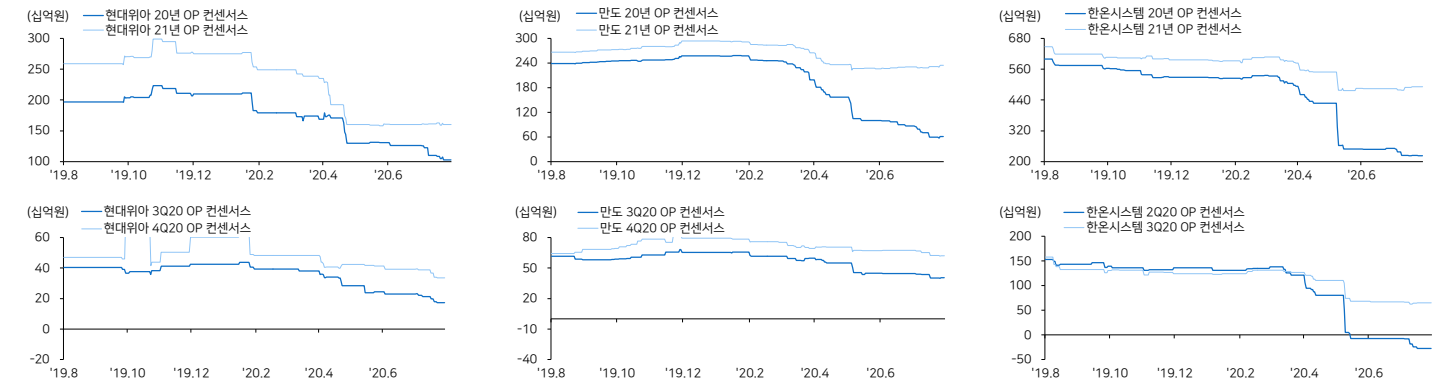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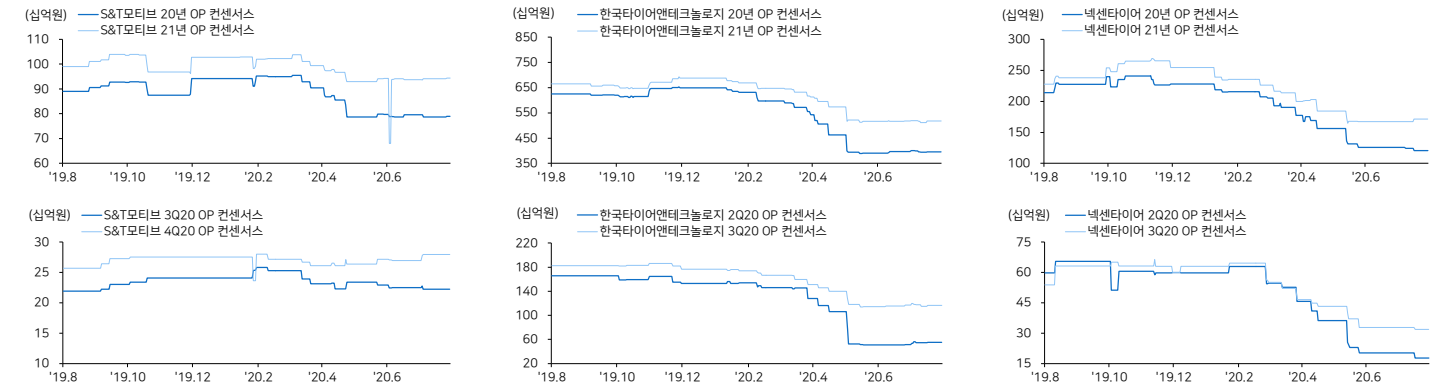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韓社 대박친 펠리세이드, 중국서도 통할까? 9월부터 판매 개시 (M오토데일리)

현대차는 펠리세이드를 중국으로 수입, 오늘 9월 말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중국 소비구조의 업그레이드, 두 자녀 정책의 개방, 코로나 19로 인한 라이프 변화 등에 앞장서 펠리세이드를 먼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힌다. <https://bit.ly/2B5Fq1F>

기아차, 크로스오버 전기차 'CV' 렌더링 등장... "테슬라 경쟁에" (지피코리아)

기아차는 신형 SUV 'CV'의 렌더링이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서 선보인 콘셉트카 '퓨처론(Futuron)'과 제네모터스에 등장했던 '이매진(Imagine)'의 스타일링 요소를 끌고온 공유했던 모습. <https://bit.ly/3icPodR>

현대차 브라질 전략차종 신형 HB20 플롬비아에도 수출 (서울경제)

현대차 브라질 전략차종인 'HB20' 2세대 모델을 플롬비아에 수출하기 시작, 현대차 중남미권역본부에 따르면 HB20 2세대 모델 303대를 실은 선박이 이날 브라질 산투스 핏을 출발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거쳐 플롬비아로 항할 예정이다. <https://bit.ly/30IQNbf>

롯데와 달았다고?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결말은 (국민일보)

한국타이어홀딩스(한국타이어)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경영권 다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중후견계사심판이 청구했던 롯데그룹의 형제간 분쟁 때와 닮은 듯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https://bit.ly/3fQVhVb>

현대차, '이제는 준중형' 제품 쏟아낸다 (오토타임즈)

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 준중형 라인업 강화에 주력한다. 현대차는 8월 중 아반떼 N라인·하이브리드, 완전변경 투싼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최근 두 제품의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인증을 마친다. <https://bit.ly/390FDnK>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혁신·친환경 등 5대 영역 제시 (전자신문)

현대차가 모빌리티 기반 고객 경험 혁신, 친환경 가치 추구,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지역사회 기여·개발 등 지속가능경영 5대 영역의 주요 성과와 중장기 계획이 담긴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https://bit.ly/2XlcWfE>

S&T모티브 2분기 영업이익 131억원...작년 동기 대비 42%↓ (연합뉴스)

S&T모티브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3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 매출은 1천92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7% 감소했다. 순이익은 62억원으로 70.9% 감소. <https://bit.ly/2XjDA11>

중국판 테슬라 '샤오멍, 美 증시 상장 추진 (ZD넷코리아)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멍모터스가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중국 매체는 샤오멍모터스가 8월을 목표로 밴쿠버아메리카, 크레딧스위스, JP모건 등과 함께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https://bit.ly/3f0ha4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